

98 JCC (예수공동체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1)

한 알의 밀

[본문: 요한복음 12 : 20 ~ 26]

하용조 목사/ 페이지수: 6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첫 번째,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얻어야 할 복이 이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요한복음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만 골라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1 ~ 5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곱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떡’ (요 6 : 35) 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 (요 8 : 12) 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양의 문’ (요 10 : 7) 입니다. 네 번째, ‘선한 목자’ (요 10 : 11) 입니다. 모든 순장님들도 ‘나는 선한 순장이다. 내 순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같이요 진리요 생명’ (요 14 : 6) 이십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요 15 : 1 ~ 5) 이십니다. 할렐루야 !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뒤집어 읽으면 기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제가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 내가 다른 문에 들어가서 방황하지 않게 하옵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이리 떼로부터 막아주옵시고, 상처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님 나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를 쓰신 것이 오늘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몇가지 중요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 유익합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결론 ‘죽음’

12장에 들어서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동안 사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네 토막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절에서 나오는 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삶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인생의 진면목을 발견합니다. 인생이 한낱 ‘쇼’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 지나가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지나가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삶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지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느냐?’하는 것이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하여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20 ~ 23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선교적인 의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상관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헬라인, 즉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를 해야 세상의 끝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끝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헬라인 몇을 보며 세계가 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주적입니다.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겉질을 깨라 !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표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한 알의 밀알처럼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온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가장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놀랍고 충만한 생애를 마칠 수 있는 열쇠가 이 구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겉질로 싸여있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겉질이 깨지면 생명이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져야 생명이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기 안에 있는데, ‘자기의 껍데기’를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껍질이 깨어져야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껍질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에 접붙여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무정란은 닭이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영생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지만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은 껍질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껍질을 깨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은 껍질깨기입니다. 인간의 껍질, 욕망의 껍질, 자존심의 껍질, 자아의 껍질을 깨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삶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고백은 잘 했다. 그러나 이제는 껍질을 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껍질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 받는 고난이 껍질깨기임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격도, 자존심도, 자아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발자욱도 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나 예수를 믿을 때나 다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다가도 다 놓칩니다. 오늘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의 자신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껍질입니다. 로마서 7장 22,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참으로 괴롭습니다. 무너져야 하는 줄 알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육체나 성령이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 ~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껍질이요, ‘성령’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껍질이라는 단어는 신약을 푸는 열쇠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껍질이 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19 ~ 21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껍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무엇입니까? 22 ~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죽는 연습인 듯 합니다. 어느날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충만했다고 내일도 성령충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인간적인 자존심, 정욕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잘 살지만 자기의 정욕과 자존심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면 잘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30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어봐야 별 것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별 것 없습니다. 오늘 처음 사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이 오늘의 나와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순간 제 자존심이 살아나고 자아가 살아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립니다. 인간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깨지는 자아, 태어나는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과정을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비난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질 때 조롱을 받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이 낡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는 욕신을 발견합니다.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무너뜨려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손해를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져야만 했을 때 기쁨으로 지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쓰러져도 나는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자아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며,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을 위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 안에 사랑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면 십자가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는 치유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흘렸던 피는 영광스러운 피가 될 것이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 출처 - 온 누 리 신 문**